집요한 책략가의 딸…어질고 자애롭지만 '단명'

8대 예종 원비 장순왕후 - 공릉

장순왕후 1445~1461(17세)

'압구정동엔 출구가 없다' 어느 시인의 시집 제목이다. 필자는 매일 지하철 압구정역을 지나다닌다. '압구정(狎鷗亭)'은 한명회가 노년에 권좌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갈매기와 벗하며 지내고 싶다하여 한강변에 지은 정자다. 지금 압구정동엔 압구정이 없다. 갈매기도 없다. 대한민국 대표적 부촌의 대명사, 강남 1번지로 자리매김 한 곳, 고급 패션, 외제차가 넘치고 성형외과가 즐비한 곳이 압구정동이다.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드라마틱한 인물, 문제적 인물이 있다. 한명회는 후자에 속한다. 사극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캐릭터가 강하다. 드라마, 소설은 평범한 위인보다 자극적이고 절묘한 캐릭터를 선호한다. 역사는 교훈의 창고만이 아니라 재미의 샘이다. 교훈은 숙성이 끝난 후 훈습되는 차맛 같은 것이다. 재미는 혀끝을 짜르르 쏘는 청량음료다. 한명회의 삶은 팔팔한 재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절세의 처세가요 탁월한 책략가, 모사가다. 딸들을 예종, 성종에게 시집보내 세조와 겹사돈을 맺은 유능하고 뻔뻔한 아비다. 셋째 딸이 예종 비 장순왕후, 넷째 딸은 성종 비 공혜왕후다. 셋째는 넷째의 언니임과 동시에 시숙모가 된다. 권력과 연루된 기묘한 촌수다. 위의 두 딸은 이미 출가하여 왕가에 헌납할 수 없었다.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는 한명회와 부인 민씨의 셋째 딸이다. 아비는 희대의 모사꾼이지만 딸들은 잘 키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직간접으로 접한, 손가락질 받는 정치가, 군인, 사업가들도 자식 교육만은 열성적이고 진지하다. 심지어 조폭 냄새나는 이들도 자식은 반듯하게 키운다. '그 아비에 그 자식'이란 말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한씨는 아름답고 정숙하여 1460년 4월 11일, 16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 책문(冊文)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정숙하여 종묘의 제사를 도울 만하다. 이제 효령대군 보(補)와 우의정 이인손 등을 보내 그대에게 책보(冊寶)를 주어 왕세자빈으로 삼는다. 그대는 지아비를 공경하고 도와서 궁중의 법도를 어기지 말고 왕업을 융성하게 하라.'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1년 7개월만인 1461년(세조 7년) 11월 30일 원손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닷새 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는다. 목숨 바쳐 나은 자식도 네 살 때 죽었다. 세조는 생전에 맏아들 잃고 며느리 잃고 손자까지 앞세웠다. 세조는 재위 중 초상을 치르고 묘역을 조성하느라 늘 바빴다. 아버지 세종, 형 문종의 국상도 그가 발 벗고 나서야할 책무였다.

그런 세조에게 한명회는 필요한 인물이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이 전횡을 휘두르자 수양대군은 지략과 용맹을 갖춘 참모가 필요했다. 한명회는 대세를 읽었다. 1415년(태종 15년) 예문관 제학 한상질(조선 개국 당시 명나라에 파견되어 '조선'이란 국호를 확정 짓고 돌아온 공신)의 손자, 한 기의 아들. 본관은 청주, 자는 자준, 호는 압구정, 사우당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과거 운이 없어 늘 낙방하여 공신의 자손은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문음(門蔭)제도로 1452년(문종2년), 38세에 개성 경덕궁직으로 관직에 들어갔다.

공릉 전경.

한명회 세조와 겹사돈 맺으며 예종·성종 2대 요직 장악
장순왕후는 17세 때 원손 인성대군 낳고 닷새 후 눈 감아
공릉, 세자빈 묘로 조성…무인석 하나없이 문인석과 석마만

남산에서 내려다본 한강 압구정 부근. 아파트 숲에 역사가 묻혀 있다.

수양대군에게 가장 먼저 접근한 수양의 좌장 권람의 주선으로 한명회는 수양의 '장량', 수양의 최고 책사가 된다. 1453년 계유정난 때 자신이 끌어들인 무사 홍달손 등이 김종서를 살해하고 살생부를 만들어 정적을 제거한다. 세조의 즉위와 함께 그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좌부승지, 우승지, 도승지, 이조판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이 그의 이력이다. 일개 궁직에 불과했던 그가 13년 만에 52세의 나이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의 지략은 집요했다. 세조와 사돈을 맺어 딸을 예종 비, 성종 비로 만들어 2대에 걸쳐 왕후로 삼게 했다. 집현전 학사 출신 중 세조의 신임이 두터운 신숙주와 인척 관계를 맺고 친구인 권람과도 사돈 관계를 맺는다. 한명회는 세조~성종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압구정동이 부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가보다.

세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한 한명회는 네 번이나 1등 공신으로 추대되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487년(성종 18년) 73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했다. 청년 시절의 삶은 꼬질꼬질했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찬란했다. 뛰어난 지략, 권력의 양지쪽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거기에 아름다운 딸들의 헌신적 희생도 한몫을 했다. 아비의 야심에 의해 세자빈이 되었다가 열일곱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순왕후의 음덕을 아비는 알까.

그 후 한명회는 1504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사에 관련했다하여 부관참시 되었으나 뒤에 복권되었다. 무덤에서 썩은 시신을 꺼내 토막 내는 수모를 당했으나 살아생전은 털끝 하나 뽑히지 않았다.

아비의 정략적 야심이 아니었다면 장순왕후는 세자빈이 될 일도, 17세에 요절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공릉을 바라보니 어린 장순왕후는 말없이 누워 있고 아비는 능침 위에서 여전히 천하의 주무르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지금도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이 자욱하다. 부디 자식을 방석으로 삼거나 재물로 삼지 말지어다.

공릉은 애초 세자빈 묘로 조성되었다. 봉분의 난간석, 병풍석, 망주석이 모두 생략되었고 무인석도 없다. 아담한 문인석 곁에 갈 곳 없는 게으른 석마가 졸고 있다. 소풍 나온 여학생들에게 물어볼까.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왕비요!'라고. '너, 열일곱 살에 죽어도 왕비 되고 싶니?'라고 되물어 볼까. 허허허! 실없는 농담이다.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 앞에선 경건해진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공릉의 정자각.

공순영릉(恭順永陵)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순릉, 영조의 맏아들 진종과 그의 비 효순왕후의 영릉이 모여 있다. 사적 제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4-1번지. 면적 132만3105㎡ (4만239평)

공릉(恭陵)은…

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셋째 딸이다. 의경세자가 죽고 둘째 아들(예종)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한명회는 1460년 그의 딸을 세자빈 자리에 앉혔다. 장순왕후는 아름답고 정숙하여 시아버지인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 세조는 왕세자빈에게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온순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우며(章), 어질고 자애롭도다(順). 1470년(성종1년) 능호를 공릉이라 했고, 1472년 장순왕후로 추존되었다.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산28-3번지
소비자상담실 (053) 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대인불안, 공포해소,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화술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특강에 오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